

한 만 영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아공간에서의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은 영

자아공간에서의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한 만 영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은 영

인 준 서

김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6년 석사 청구 전시에 발표되었던 근간의 작업 주제인 ‘공간’에 관한 연구로, 표현 동기, 공간의 형성, 그리고 공간의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본인의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모든 예술작품은 그 시대의 아들이며, 때로는 우리 감정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각 시대의 문화는 결코 반복할 수 없는 고유한 예술을 창출해낸다.”¹⁾

“예술은 사고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존재에 대한 심오한 내재적 인식을 가능케

하여 줌으로써 사회를 치유하고 인간정신을 승화 시킬 수 있다.”²⁾

예술은 곧 시대의 반영이고, 그 시대는 또한 예술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술적 사고의 주도권을 가진 작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작품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회도약에 힘을 불어넣는다.

산업화 이후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경제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얻었지만 그 안에 획일화, 무기력, 인간 소외라는 부작용을 떠안았다. “인간이 오랫동안 숙고해서 발전시켜온 사회 경제 정치 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거대성 때문에 이제는 한낱 그 부속품처럼 되고만 인간 자신의 무력감 등이 모두는 바로 산업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핵심이 되고 있다.”³⁾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을 치유하고 사회에서 인간이 주체성 있는 존재로 회생하기 삶을 채울 여지를 만들고 작품을 통하여 각박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안정된 자기만의 이상세계를 꿈꾸게 하는 것이 작가의 몫이다.

1) 칸딘스키, 권영필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미술책방 2004. p.17

2) 임두빈, [세계관으로서의 미술론], 범조사, 1988. p.11

3) 파펜하임, 진덕규옮김 [현대인과 인간소외], 학문과 사상사, 1977. p.5

본인의 작업은 편리함과 실용성 추구로 틀에 박힌 사고의 유형들만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건축물들에 반하여, ‘보금자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보다 인간적인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한다. 표상적으로 보이는 세계와는 다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확장하기를 기획하고 형태변형, 공간구조의 자기 해석화를 보여주고자 했다.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건축물의 구조적 형상이 단순화되고 평면화 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3차원의 다각화된 대상, 상징적인 의미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구조적 측면과 시각적 조화를 통해 공간의 재창조를 추구한 것이다.

또한 멀티플개념을 토대로 선과면 기하학적인 형태에 집이라는 물리적, 정신적 개념을 도입하여 입체작업을 하였고 입체에서 다시 평면으로 옮겨오며 모노톤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II. 본론	4
1. 이론적 배경	4
1) 공간의 정의 및 개념	4
2) 집의 상징적 의미	6
3) 공간의 확장	8
2. 공간의 조형적 특성	10
1) 평면	10
2) 입체	12
3) 색	13
III. 본인의 작품분석	16
IV. 결론	29

참고문헌

참고도판

Abstract

작 품 목 차

(그림1) Axonometric I , 160 × 75cm, Acrylic on canvas, 2005

(그림1-1) Axonometric II, 165 × 64cm. Acrylic on canvas, 2005

(그림1-2) Axonometric III, 165 × 64cm. Acrylic on canvas, 2005

(그림2) 원형공간, Acrylic on canvas, 2005

(그림3) House, 190 × 85 × 70cm, Mixed media, 2006

(그림4) Space, 각20 × 20 × 20cm, Mixed media, 2005

(그림4-1) Space, 각20 × 20 × 20cm, Mixed media, 2005

(그림4-2) Space, 각20 × 20 × 20cm, Mixed media, 2005

(그림5) Be realized, 각30 × 30cm, Oil on canvas, 2006

도판 목차

(도판 1) 김은영, House, 110 × 88 × 80cm, Mixed media, 2006

(도판 2) 김은영, Be realized, 각30 × 30cm, Oil on canvas, 2006

(도판 3) Leonardo da Vinci,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비례

(도판 4) Donald judd, 무제, 동, 에나멜, 알루미늄,
916 × 155.5 × 178.2cm, 1972

(도판5) Donald judd, 무제, 황동과 형광 플렉시글라스
304.8×68.6×61cm. 1970

(도판 6) 동대문 송인교회, Axonometric

(도판7) Malevich, Kazimir Severinovich, 흰마탕위의 흰사각형. 1917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 대한 문제들로 여러 가지를 떠올릴 때 가장 지속적으로 신랄하게 비판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산업화 사회에서 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소외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사회 발전의 주체였던 인간이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잃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이르러 위험수위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현실에서의 혼란을 예술을 통해 위로해주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현실 밖의 일을 꿈꾼다. 현실에서의 일탈은 공통된 욕구이다. 작가들이 그 임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작품연구 논문은 본인의 창작의지의 본질을 탐구하여,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현실로부터 일탈의 공간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하여 무한한 공간을 인식하고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유로움을 표현하게 된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연구목적은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본인 작업의 이론들과 논의들을 정리함으로서 이전의 회화에서 공간표현의 조형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표현요소와 방법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의미론과 방법론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 무한의 공간을 지각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향유하는 공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인간 모두에게 활동의 근원이 된다. 인간은 그들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비현실적 공간(독립적인 상상 속의 공간)을 그리며 살아간다. 즉,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공간은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인간은 그 공간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세계를 다시 꿈꾸게 되는 것이다. ‘예술은 사물을 재생하거나 형식을 조성하며 경험을 표현하는 의도적인 인간 활동’⁴⁾이다. 작가는 작품에 사회를 반영하고 일상 속에서 경험한 현상을 새로운 형태의 작품으로 재구성하여 작품세계를 구축해나간다.

자와 각도기 등을 이용, 건축적 성격을 보여주는 선과 면 작업(평면작업)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 공간 크기를 시도한 조형 작업(입체작업)을 통해 현실의 재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은 그 시대상황이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작가 또한 인간이기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영향을 받는다. 이에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대 건축물들의 구조 안에서 본인의 작업 소재를 찾아내어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boxed{\text{내면의 세계}} = \boxed{\text{상상의 세계}} = \boxed{\text{무한한 공간}}$$

이다.

4) W.타타르키비츠 지음, 김채현 옮김 [예술 개념의 역사], 열화당, 1987 p.72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처음의 작품개요에서는 선행된 작품과, 연구 논문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간단히 제시하였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에 관해 제시하였고, 제2장 본론에서는 이론적배경과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 관해 조사·연구하였다, 본론의 첫 번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공간의 정의 및 개념을 통한 공간의 기본적 개념과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 무한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공간의 확장에 관해 조사·연구하였으며, 두 번째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서는 평면적인 특성, 입체적인 특성, 색에 관한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마지막, 결론 및 미래에 대한 제언에서는 연구 논문에 관한 결론과 한계점, 앞으로 작품에서의 나아갈 방향에 관해 제시하였다.

II.본론

1. 이론적 배경

1) 공간의 정의 및 개념

공간(空間)의 사전적 의미는 ①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칸, ②(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③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④물리학에서,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 ⑤철학에서,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기본 형식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외부 세계를 인식 하기 위한 사고 과정은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표현이 각 개인마다 다르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인 차이를 보인다. 결국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견해의 종합이 필요하다. 즉, 대중의 일치된 견해인 ‘합의’에 의해 세계가 인식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에 대한 ‘합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시대정신(zeitgeist)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세계도 변화하는 것이다. 공간인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간인식은 그 시대의 공간에 관한 사고인 공간 관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대적인 공간 인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논점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논점은 공간이 과

연 실체인지의 물음과 실체라면 어떻게 실체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계해있다. 인식론적 논의는 다시 인식 근거의 문제와 인식 방법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간 인식 근거와 관련한 대표적 논의는 경험적 공간론과 선험적 공간론이다.

즉,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시각이나 촉각 등의 작용에 의한 공간지각(空間知覺)에 입각하여 공간표상(空間表象)으로서 주어지며, 철학적으로는 그 공간표상에서 출발한 경험적 공간을, 어떤 특별한 요소에 의해서 성격이 부여된 선험적 공간(先驗的空間)과 구별하고 있다.

경험적 공간과 선험적 공간의 논의는 뉴턴과 칸트의 공간론으로 대표될 수 있다. 뉴턴은 “절대적 공간은 그 자체의 본성상 외부의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항상 유사한 부동의 상태로 남아 있다. 상대적 공간은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의 부분 혹은 척도이다. 이 공간은 우리의 감각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체의 위치를 그 고안 내에 정함으로써 결정된다. 그리고 이는 통속 적으로 부동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⁵⁾라고 경험적 공간에 대하여 논하였고, 칸트에게 있어 공간은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감각적 인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고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공간은 "선험적"⁶⁾으로 부여된 개념이지 외부적 경험에서 형성되는 경험적 산물은 아니었으며 이는 자연과학에서의 뉴턴의 절대적 공간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선험적 공간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현대 건물의 구조에서 가져온 조형적 이미지를 통해 이상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본인의 작업은 경험적 공간을 바탕으로 한 선험적 공간에 대한 연구라 하겠다.

5) C. Norberg-Schluz, 실존·공간·건축, p9

6) 노은주, (현대건축에 있어 공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27

2) 집의 상징적 의미

본인의 작업에서 추구하는 세계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느낌과, 가능한 한 무한성에 가까이 가보려는 열망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깊고도 깊은 무한! 무의식을 향한...휴식, 꿈’ 무한성=휴식-무의식=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움.”⁷⁾ 이라고 말했던 에셔의 정신적인 그것과 같다. 본인이 지향하는 이상세계는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안식처’ 이면서 내가 속해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와 다른 형태의 이상적인 세계이다.

본인은 회화적 공간에서 내면의 정신세계를 찾는데 본인의 작업에서 상상의 공간은 현실에서의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시각을 조금 다르게 하여 이미지들을 변화 시키고 현실과 비현실, 안과 밖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상세계에 대한 욕구의 표출로 공간을 구축해 나간다.

본인의 작품에서 대표적 소재인 집은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그밖에 집은 다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인의 작업에 있어 집은 자아공간으로 현실에서 분리 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현실에서의 일탈을 시도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집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고 나서 까지 영원히 인간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의 뱃속의 아기집에서 살게 되고 세상에 나오면 가족의 보금자리인 건물로 된 집에서 산다.

이처럼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집’이라는 보호막 안

7) M.C.에셔의 지음 김유경 옮김, [M.C.에셔,무한의 공간], 2004, 다빈치, p.158

에 살고 있는 것 이다. 이렇듯 보호막안의 안정되고 편안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요나컴플렉스라(Jonah complex)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어머니의 태반 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우리들이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 있을 때에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이 이 때문이다.⁸⁾

본인의 일탈의 장소로서 집은 작업에서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 이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데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았을 때 집의 공간적 의미는 현실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포함된 물리적 구조로 파악된다.

현실과 비현실, 의식과 무의식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현상(Erscheinung)이든지 두 가지 방식으로 체험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현상들과 연관된 것이다. 이를테면, 이들은 현상들의 본질(Natur), 즉 동일한 현상의 두 가지 고유성인,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부터 이끌어내진 것이다.

유리창을 통해서 거리를 바라보면 거리의 소리는 감축되어 들리고 거리의 움직임들은 판토크림처럼 보이며, 거리 자체는 투명하기는 하지만 견고하고 단단한 유리창을 통해서 격리되어있는, 즉 피안에서 고동치고 있는 본질로 나타난다.

막상 문이 열리면 우리는 폐쇄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이 본질 속에 혼입하여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모든 감각을 가지고 이 고동을 체험하게 된다. 이 계속 변화되는 소리의 음정과 템포는 인간을 둘러싼 채, 소용돌이의 모습으로 상승되다가 갑자기 쇠약해지면서 사라져간다.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다".⁹⁾

여기서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와 외부, 안과 밖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과 밖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무척 모

8) G.Bachelard,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문예신서, 2003, p.11

4) W.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 선. 면] 열화당미술책방 2004, p.11

호한 일이다. 안에 있다고 해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안이 밖이 될 수도 있고 밖이 안이 될 수도 있다.

“안과 밖의 형성은 바로 그 두 향에 토대를 둔 정신착란의 형성입니다. 그 둘의 형태상의 대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너머에서는 정신착란이 되고 둘 사이의 적의(敵意)가 됩니다.”¹⁰⁾ 그러나 본인의 작업에서의 안과 밖은 물리적인 집의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볼 때 먼저 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형성되어지는데 문의 열림과 닫힘으로 인해 공간이 내부와 외부로 나뉜다. 따라서 닫힌 문의 안쪽 내부공간은 자아공간이 되고 그 안에서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을 한다. 집의 내부는 사방연속무늬를 넣어 확장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무한한 공간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3) 공간의 확장

무의식의 세계,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의식의 세계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공간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무한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 본인의 연구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무의식 속에 혹은 본인의 내면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완전한 자유로움의 실체를 가시화한 것인 만큼 작품과 무한한 공간과의 관계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무한은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삶이 억제하고 조심성이 멈추게 하나 고독 가운데서는 다시 계속되는 일종의 존재의 팽창에 결부되어 있다. 우리들은 움직임 없이 있게 되자마자, 다른 곳에 가 있게 된다. 우리들은 무한한 세계 속에서 꿈꾼다. 무한은 움직임 없는 인간의 움직임이다. 무한은 조용한 몽상의 역동적인 성격의 하나이다.¹¹⁾

10) G.Bachelard,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문예신서, 2003, p.356

11) ibid, p.319

경험한 현실의 구조들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가시화된 이것은 현실에서 이미지들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의식 속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내면의식은 나의 성격이나 생각, 기억 등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삶을 통해 형성된 세계로 그 이미지들을 통해 무한한 공간을 상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멀티플 개념이 도입되는데, multiple이란 복수성, 무한대, 무한의 개념으로 (도판1) house에서 구조물 안에 사방연속 무늬를 넣음으로서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정신적으로 확장을 시도가 그러한 예 이다. 또한, (도판2) be realized에서는 정방형¹²⁾의 캔버스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어 그 안에 구조들을 그려 넣어 복수성, 무한성의 개념을 표현하였다.

획일화되어가는 건물의 그 가장 큰 예로 아파트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회색의 모든 같은 모양의 아파트 형식에서 비롯되어 그 무한한 개체수를 표현하였고, 같은 프레임이지만 각각의 개체에 다른 이미지들을 넣음으로서 같은 프레임 안에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담고 있다.

형식적으로 본인의 작품과 유사한 예를 미니멀리즘의 작품들에서 보면 무한, 연속성의 공통적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 또는 모듈이 적게는 두 번에서 많게는 백스무번까지 반복되며,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모습을 띤다.¹³⁾ 이러한 작품들은 공간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판4),(도판5)1972년 도널드 저드(Judd donald,1928~1994)의 작품을 보면 각각의 단위가 동일하고, 단위 사이의 간격도 동일하며 각 간격과 각단위의 크기도 같다. 반복과 간격이라는 구성방식에 의해 제작된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저드는 전체적으로 경험되는 단일한 사물이라는 생각

12) 정방형은 안정의 심벌인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례도(도판3) 에서 보듯이 인간이 서서히 팔을 벌리면 정방형이 됨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p.140

13) 데이비드 배츨러, 정무정 옮김,[미니멀리즘], 현대미술운동의 총서, 2003, p.11

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곳 단일한 개체가 전체로 경험되어지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에서도 개체수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개체는 하나하나 독립된 성격을 갖기도 하고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는 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2. 공간의 조형적 특성

본인의 작업에 조형적 특성을 크게 평면과 입체, 색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공간의 확장 의미를 공통개념으로 하여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평면회화작업과, 입체조형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 평면

본인의 공간에 대한 조형적 관심은 건축에 사용되는 형식들, 도면, 모형, 조감도등 건물을 이루는 구조에서 시작되었다.

본인의 평면작업은 기하학적으로 보여 지는 데 그러한 요소는 ‘선’적인 느낌에서 오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는 일필(一筆)로써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어떤 보조도구도 없이 유창하게 원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원과 같은 하나의 완벽한 기하학적 형상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각 현상에서 완벽한 직선이나 완벽한 정형의 곡선은 기계적인 성격을 의식시켜준다. 유기적인 수공품에 상반되는 기계제품의 미적 특성은

기하학적인 정확성과 정형성(定形性, regularity)에 있다. 유기체에서의 형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은 인간적 성격을 의식시켜준다. 그래서 직선과 컴퍼스로 그린 곡선으로 된 미술품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미술품들을 ‘기계적인’ 형태로 느끼게 된다. 기계형태는 우리가 알기로는 자연의 사물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이지적활동인 계획성과 엄격한 구성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기하학적 형상들은 ‘대뇌적 특질’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은 수학과 같이 순수한 이지(理智)의 산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¹⁴⁾

실제로 사람들은 선과 면이 만들어 내는 공간이 현실로 실현되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서 얻어진 이미지들을 표현하게 된다.

'예술 사회학(sociology of art)'의 창시자인 19세기의 테이느(H. aine)는 예술의 성격을 인종, 지리적 환경, 시대 등 세가지사회적 조건이 결정짓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지리적 환경, 즉 그 사회의 풍토가 어떠하냐에 따라 조형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19세기의 실증적인 연구를 상기하게 된다.¹⁵⁾ 본인이 다른 지역에 살았더라면 그 지리적 환경에 따라 작업의 소재도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에서 회색 건물의 구조로 보여 지는 특징은 현대 도시의 획일적인 건물들에서 받은 영향이다.

be realized에서보면 정사각형태의 틀에 각각 다른 내용의 구조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구조들은 계단, 창문, 기둥 등 건물에서 온 조형적 요소들로 이루어져있다. 정방형은 정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2차원의 공간에서 투시도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구조를 연출한다. 그 안은 마치

14) *ibid*, 1996, p.37

15)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p.19

우리가 실제로 인적 없는 하얀 건물 안에 들어간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틀은 또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2차원의 공간들 투시도를 이용하여 정방형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그려진 작품들은 그 안의 구조들을 볼 때 시선을 집중시키고 더욱 정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 화면 안은 오직 새어 들어오는 빛과 구조만이 존재한다. 이것을 나열 하였을 때,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같은 모양의 외형을 하고 칸칸이 배열된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이미지로 느껴진다. 그러나 확일 적인 아파트와는 달리 같은 틀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그 안의 각각 다른 내용의 구조를 넣어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다양한 이미지로 느껴진다.

2)입체

본인의 작업에서 입체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입체물의 크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전시장에서 관람자들이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house는 3차원의 작업들로 형태는 말 그대로 집의 형태이다. 집 모양을 변형시켜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집의 모양을 뒤틀어 놓음으로서 오는 괴리감은 획일적인 현실에 대한 일탈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태를 단순화하고 변화 시켰지만 여전히 집의 상징적인 형태는 남아있다.

house에 달린 문은 현실과 비현실을 잇는 매개체가 된다. 여기서 문의 열림과 닫힘으로 인한 공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문밖의 공간은 현실이고 문 안의 내부공간은 비현실의 자아 공간이 된다. 문 안쪽 내부는 사방 연속무늬들로 가득 차있는데 관람자는 백색의 외부와는 다른 내부공간의 화려한 무늬들을 볼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관람자들은 ‘자아 공간’

인 내부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내부공간의 사방연속무늬는 반복성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무늬의 반복적 현상들은 무한의 의미로 전이되고 이는 공간의 무한성 확장의 의미로 확대된다.

작품의 설치는 설치공간과 작품이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건물 안에 다시 집이라는 구조를 넣음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공간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건물 안에 작품의 공간이 들어감으로서 연속적인 공간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 안에서 관람자는 작품과 더불어 있는 자신만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새로운 주체로서 관람자의 역할이 강조 되면서 작품의 구조는 관람객에게 개방되고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관람객은 작품의 일부를 이루면서 작품과 마주한 실제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이라는 방법적 수단에 의해 획득된 내적 공간의 배제는 미술관의 공간과 관람객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공간의 변모는 작가역할의 축소와 관람객의 지적경험 변화라는 논제로 귀결된다.”¹⁶⁾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 미니멀리즘의 작품들의 특성인 반복과 연속적 구조, 3차원의 구조물 설치는 본인의 작업과 유사하게 보여 진다.

미니멀의작품은 실내의 ‘장소를 차지함’으로서 관객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놓인다. (도판6) 그럼 으로서 관람객은 작품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상상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3)색

본인의 작업에서 보여 지는 색은 대부분이 회색의 모노톤으로 이것은 환

16) 김민지, [미니멀리즘 공간의 개념의 발생과 그에 대한 비평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경적 영향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획일적인 모양과 회색톤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본인이 느끼기에 무표정함, 삭막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에서 회색의 이미지는 내적 심상으로 표현으로 인한 정신적 안정감, 의식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회색은 중립적인 성격만큼 무수히 많은 의미로 해석되는 색이다. 그중 “회색은 음향과 운동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은 두 개의 능동적인 색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초록색의 휴식과는 다른 성격이다. 회색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부동이다. 이 회색이 짙어지면 짙을수록 절망감은 더해지고 질식시키는 힘이 나타난다. 회색이 밝아지면 일종의 공기가 유통되고 숨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면 그 색은 어느 정도 숨겨진 희망의 요소를 갖게 된다.”¹⁷⁾ 라는 이론에서와 같이 본인의 작업에서 회색은 후자의 이미지를 더 닮아있다. 본인은 작업과정에서 흰색에서 밝은 회색을 주로 사용하는데 회색의 범위는 한계가 없다. 회색은 모든 색을 포함하며 모든 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회색에 유채색을 조금씩 섞으면 같은 회색이여도 그 느낌이 조금씩 변화하여 색감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면에서 회색은 모든 색을 포함하며 모든 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추구하는 무의식의 공간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정신적 공간이다. 안정된 형과 색으로 된 무한의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노톤의 색감은 중요한 조형적 요소가 된다. 절대주의의 대표자격인 말레비치(Malevich, Kazimir Severinovich, 1878~1935)는 “절대주의는 창작 예술에 있어서 순수감성의 절대적 우위를 말한다.”라고 그의 회화의 의도를 피력했는데 이는 곧 시각적, 물질적 현실세계를 초월하여 대상없는 정

17) W.칸딘스키, 차봉희 역 [점. 선. 면] 열화당미술책방 2004,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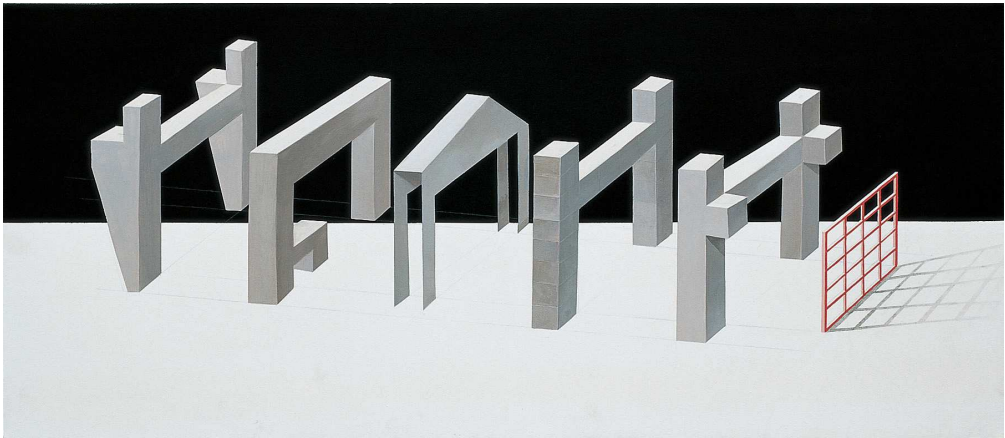
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밀레비치의 극심하게 절제되어 단순화된 정방형의 작품(도판7) ‘흰바탕 위의 흰 사각형’의 정신적인 것은 본인의 작품에서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정신적인 공간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Ⅲ. 본인의 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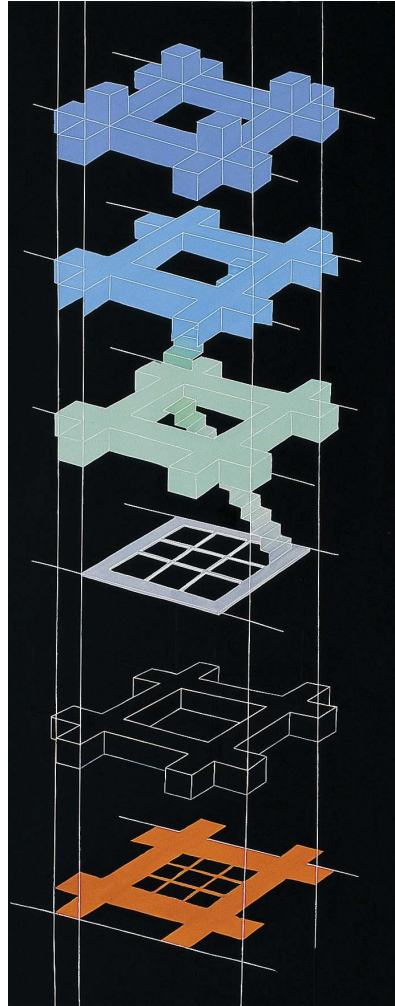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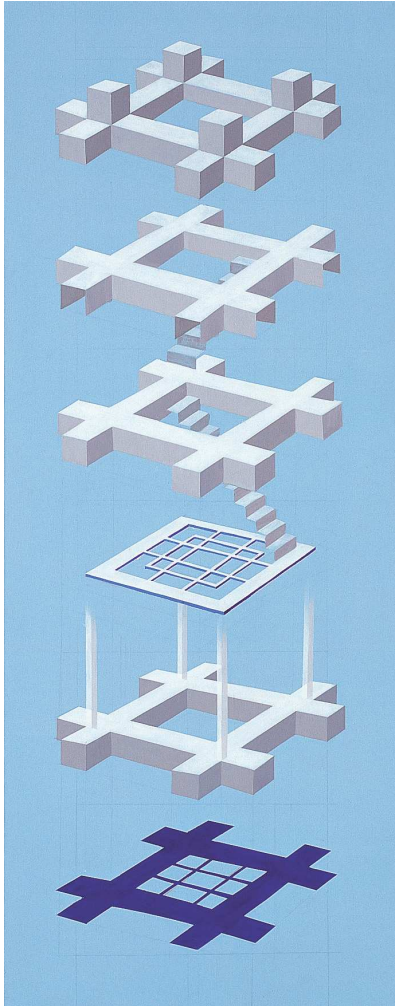
(그림1) Axonometric

건축의 용어인 Axonometric에서 시작된 작업으로 Axonometric은 일종의 투시도의 의미를 하고 있다.

자를 이용하여 작업한 효과로 기하학적인 구조들은 마치 도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선들에 의해 나열된 구조들은 계단이나 기둥을 포함하고 있어 개체마다 건물의 구조로 보이고 해체된 구조들이 결합 했을 때 마치 하나의 건물구조를 이루는 듯이 보인다. 해체된 이미지들은 캔버스의 끝과 끝을 가로지르는 선들에 의해 확장되어 보이고 더 많은 이미지를 상상하게 함으로서 무한한 공간을 표현하였다.



(그림1) Axonometric I
160 × 75cm, Acrylic on canva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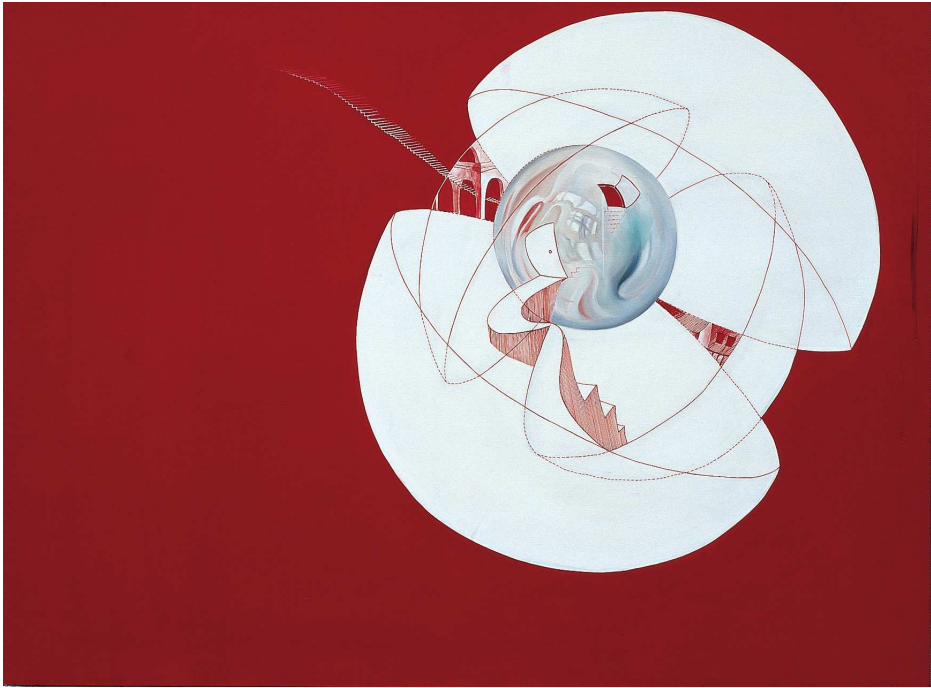


(그림1-1) Axonometric II, 165 × 64cm. Acrylic on canvas, 2005

(그림1-2) Axonometric III, 165 × 64cm. Acrylic on canvas, 2005

(그림2) 원형 공간

무의식의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초기의 작품이다. 원의 의미는 가장 원만하고 완전함, 우주를 의미하는데 평면의 공간의 위쪽에 그려 넣은 원은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 들게 한다. 원의 겹침으로 인해 생겨난 공간들에 본인이 무의식 적으로 나온 건물들의 형태를 드로잉 한 것이다. 중간에 그려진 이미지는 마치 꿈에서 본 형상들과 같이 불분명한 이미지를 넣어 비가시적인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계단의 이미지는 계속 되는데 끝이 없는 계단들은 공간과 공간을 잇고 무한의 공간으로 펼쳐 나간다. 이시기부터 가상의 무의식의 공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한 작업이다.



(그림2) 원형공간
crylic on canvas, 2005

(그림3) house

상징적인 집의 모양을 단순화하고 형태를 왜곡시켜 제작된 입체 작업으로 '나'만의 정신적, 물리적, 공간을 찾기 위해 집을 소재로 하게 된 작업이다.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자신만의 공간에서 안정을 취하고 상상의 공간을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집은 또한 실제 건물 안에 들여놓음으로서 집안의 집을 의미하는데 공간 속에서 공간을, 자꾸 그 안을 파고들게 되면 무한의 공간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집안의 사방연속무늬를 넣어 무한 공간으로의 확장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림3) House, 190 × 85 × 70cm, Mixed media, 2006

(그림4)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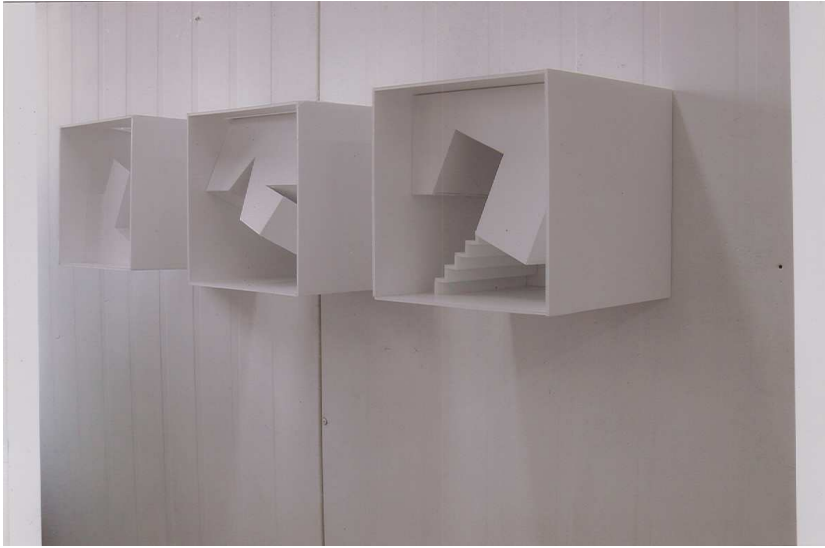
이 작업은 정육면체의 틀 안에 구조들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같은 사이즈의 무수히 많은 틀 안에 각각 다른 내용의 구조들을 넣었는데 여기서 보여 지는 구조들은 현대 건물의 한 부분처럼 느껴진다. 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진 공간은 한 방향에서 들여다봄으로서 시선을 공간에 집중하게하고 오직 흰색의 구조들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들에서 무한한 공간을 느끼게 한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밖에서 안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공간 안에서 밖을 내다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육면체 공간 안은 현실이 되고 공간 밖의 현실은 또 다른 현실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육면체 안의 공간은 현실에서 일탈의 공간이 된다.

육면체 각각의 개체들은 전시공간에서 벽이나 기둥에 자유롭게 설치되기도 하고 여러 개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이루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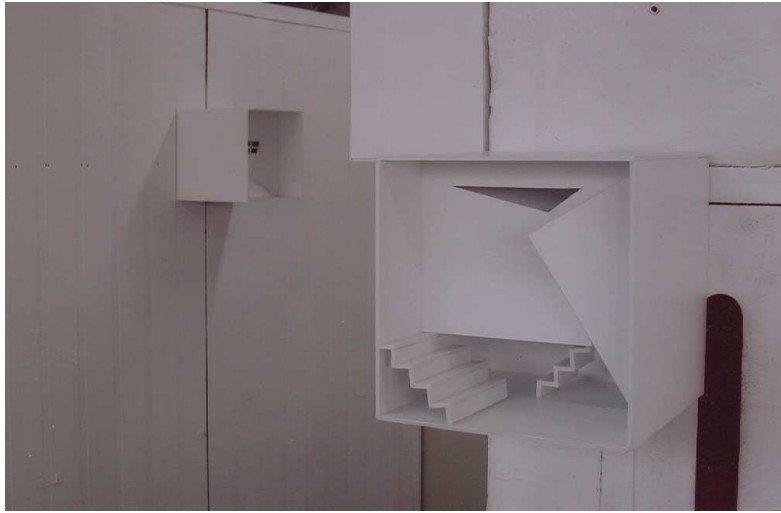
(그림4) Space

각 20 × 20 × 20cm, Mixed media, 2005



(그림4-1) Space

각 20 × 20 × 20cm, Mixed media, 2005



(그림4-2) Space

각 20 × 20 × 20cm, Mixed media, 2005

(그림5) Be realized

입체물인 space를 다시 평면으로 옮긴 작업으로 이 작업 또한 정사각형태의 캔버스 틀에 맞춰 이미지를 그려 넣었다. 이 작업은 모노톤의 작업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고 그 형태 또한 입체에서와는 달리 2차원의 공간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구조들을 다방면에서 관찰하여 하나의 포커스를 정해놓고 진행된 작업이다. 3차원에서 느껴지는 정적인 공간의 느낌과 2차원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한 작업이다.



(그림5) Be realized
각30 × 30cm, Oil on canvas, 2006

IV. 결론

지금까지 본인은 본 논문에서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도시환경을 소재로 삼아 그곳에서의 일탈을 주제로 새로운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회와 환경에 대하여 공통적인 ‘합의’에 의해 공간을 인식할 것이다. 좋은 것은 함께 좋다 하고 싫은 것은 함께 싫다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획일화된 과정의 반복은 현대 도시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 몫이다.

본인의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구조들의 요소를 가져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하는 조형적 요소들에 대하여 모색해보고 그 구조들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또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공간에 대하여 연구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여 공간의 무한성에 관하여 작업함으로써 정신적 공간의 구축을 작업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2차원의 평면 작업에서 선과 면을 이용한 공간 확장을 시도하였고 3차원의 공간으로 확대하여 관람자를 작업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느끼고,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대인의 소외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에 작업에 있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한다.

본인은 이 작품 논문을 통해 이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의 정리와 본인의 작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고 조형적으로도 부족한 점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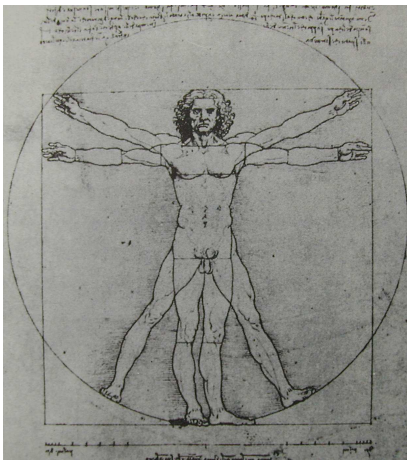
참 고 도 판



(도판1) 김은영, House,
110 × 88 × 80cm
Mixed medi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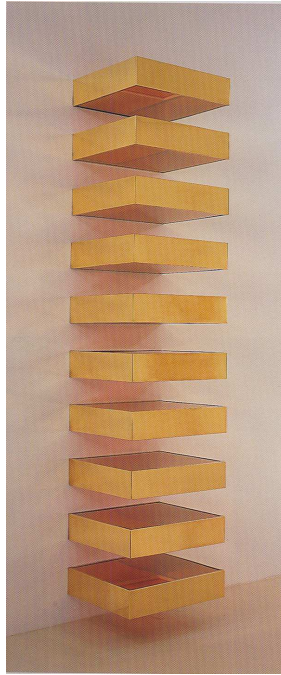
(도판2) 김은영, Be realized,
각 30 × 30cm
Oil on canva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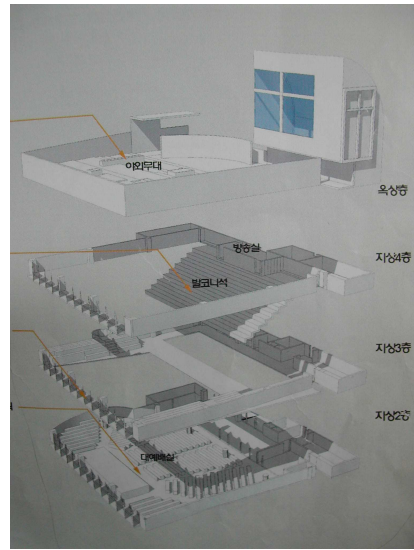
(도판3) Leonardo da Vinci,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비례



(도판4) Donald Judd, 무제
전체 121 × 304.8 × 304.8cm,
채색된 강철.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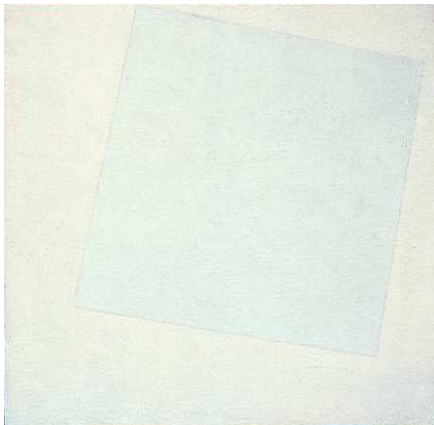


(도판5) Donald judd 무제, 황동과 형광 플렉시글라스 304.8×68.6×61cm. 1970



(도판6)Axonometric,

동대문 승교회



(도판7)Malevich, Kazimir Severinovich,
흰 바탕위의 흰 사각형. 1917

참 고 문 헌

단행본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역필 역, 열화당미술책방, 2004

임두빈, (세계관으로서의 미술론), 범조사, 1988.

파퐁하임, 진덕규옮김 (현대인과 인간소외), 진덕규옮김 학문과 사상사, W.타타르키비츠 지음, 김채현 옮김 (예술 개념의 역사), 김채현 옮김, 열화당, 1987

M.C.에셔의 지음 (M.C.에셔, 무한의 공간), 김유경 옮김, 2004, 다빈치,

G.Bachelard,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문예신서, 2003,

W.칸딘스키, (점. 선. 면), 차봉희 역, 열화당미술책방 2004,

김춘일, 박남일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이일,(한국5인의 작가-다섯 가지의 흰색전) (동경화랑,1975)

학위논문

노은주, (현대건축에 있어 공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김민지, (미니멀리즘 공간의 개념의 발생과 그에 대한 비평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안수경, (자유로움과 무한 공간의 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Plastic Nature in Self-Space

Kim, Eun Young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the study on 'space' which is the work subject of these days which was announced in the exhibition to apply for master's degree in 2006. Then, I analyzed my work centering around expression motive, space formation, and plastic feature of space.

"All the works of art are the sons of the period and sometimes the mother of our feeling. Thus, the culture of each period creates specific art which cannot be repeated."

"Art may heal society and sublimate human spirit by letting human beings have thinking and enabling profound immanent recognition for existence. Art is just the reflection of period, and the period is influenced by art. In this relation, artists who have the initiative of artistic thinking inspire power for new society leap by reflecting the form of modern society on work.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society after industrialization, our society

has changed fast and obtained economic abundance and convenience but held side effect to be standardization, non-individuality, enervation and human alienation.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that human beings have considered and developed for a long time, the form of human beings in it became the model

which is nothing but accessory, because of complexity and gigantic nature that itself has. Work for healing these negative results and reviving as the existence to have subjectivity is made through artists. Making margin which fills life with unconscious freedom and rest and letting human beings dream stable own ideal world even for a while by getting out of hard actuality through work are the portion of artists.

My work tries transformation into more human space which started from the concept, 'nest' contrary to modern buildings which are showing only the types of framed thinking by the pursuit of convenience and practical nature. I tried to plan to expand to the world of infinite possi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world to be seen with representation and show the transformation of form and

the self-interpretation tendency of space structure. I sought the recreation of space through structural side and visual harmony, so that the structural form of building to be seen externally may be seen as multilateral subject of 3 dimension and the subject of symbolical meaning which are not the subject of description which is simplified and is made into solid. In addition, I did solid work by introducing physical and spiritual concept to be house to line, surface and geometrical form on the basis of multiple concept and progressed the work of monotone by transferring from solid to plane again